



김영욱 도봉구청 청소행정과 재활용계장

▼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인연을 맺은 지도 8년, 이제 재활용업무를 자의로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유명세(?)를 치르며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다. 주로 사내에서 일하며 가끔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인 행정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필자는 주민 곁, 재활용 현장에서

## 지자체 직원들

# 적극적인 사고 필요하다

수년간 재활용 관련사례들을 체험해왔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문제점과 악순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재활용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분리수거 관련 문제점을 꼽으라면 첫째 재활용 시장구조의 미비, 둘째 재활용 관련 시설 낙후, 셋째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재 등을 논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재활용 상품의 순환구조 미비 등을 말할 것이다. 맞는 말이나 변죽만 울렸을 뿐 중요한 핵심은 모두 빠져있다. 문제는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부재', '재활용 관련 일선기관(지자체)의 기피'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직원들은 청소과 발령을 수처로 생각하고, 발령받는 즉시 타부서로의 진출을 생각한다. 이런 사고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제시되어도 발전적 시행방안이 나오리 만무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민의 참여 의식 부족'은 일 안 하려는 직원들의 핑계라고 생각될 뿐...

중량제 실시 3년 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시행했던 경험과 전국 최초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처리비용 주민부담) 자원화 할 때 주민 참여 의식을 실례로 들어보자. 93년만해도 주민들의 재활용 또는 환경의식은 그리 높지 않았다. 환경부 직원들을 제외하면 공무원 대부분이 '재활용은 환경미화원이나 주부들이 하는 일'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도봉구는 직원들의 정성스런 홍보에 감탄(?), 재활용이 어렵다는 단독주택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가 어느 지자체보다 높았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부문에서도 도봉구의 주민 참여율이 대한민국 최고인 것을 보면 '주민들의 참여의식 부재'는 논할 가치도 없는 것 같다.

이런 저런 이유로 유명해진 도봉구는 비록 열악한 시설로 볼 것도 별로 없지만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는 청소행정 전진 자치구가 되었다. 특히 95년도 중량제 시작과 동시에 재활용 우수 구로서,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감용기를 최초 설치하였고, 매년 페스티볼 재활용 액자를 지원받아 견학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재활용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이지만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경제난세를 극복하고 환경보존이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지자체 직원들의 전문성, 적극적인 사고 및 시설투자, 관련단체나 협회와 뜻있는 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다.